

예비 가정과 교사의 교수내용지식(PCK)과 교수 효능감 관련 연구

김은정* · 이윤정**1)

중동중학교* ·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A Study on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PCK) and Teaching Efficacy of Prospective Home Economics Teachers

Eun Jeung Kim* · Yoon-Jung Lee**1)

Joongdong Middle School ·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PCK) and teaching efficacy levels of prospective Home Economics teachers. Also of interest were the relationship between PCK and teaching efficacy, as well as the personal factors that influence PCK and teaching efficacy. A survey was administered to students majoring in Home Economics in colleges of education or graduate schools of education in South Korea, and a total of 202 complete responses were analyzed. The prospective Home Economics teachers showed moderately low levels of PCK and teaching efficacy. Among the PCK subcategories, the mean score for content knowledge was the highest, those for expression knowledge and environmental situation knowledge were the lowest. Expression knowledge and content knowledge showed significant effects on teaching self-efficacy, and expression knowledge and environmental situation knowledge on teaching result expectation. As for students' personal characteristics, years in college showed significant effect: Sophomores were the highest in PCK and teaching efficacy levels. Also, those who plan to become Home Economics teachers showed significantly lower levels of PCK and teaching efficacy perception than those who do not. Besides, the more basic required courses they took, the lower their perception of PCK or teaching efficacy. This study suggests that teacher education programs should develop a program that can enhance prospective teachers' teaching efficacy by providing advice and assistance to those students who plan to become teachers, and more hands-on opportunities to practice teaching.

Key words: 교수내용지식(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교수 효능감(teaching efficacy), 예비 가정과 교사(pro prospective Home Economics teachers), 교사양성과정(teacher education program)

1) 교신저자: Lee, Yoon-Jung, 145 Anam-ro, Seongbuk-ku, Korea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Tel: 02-3290-2326, Fax: 02-927-7934, E-mail: yleehe@korea.ac.k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세기는 세계화·개방화·정보화 사회로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교육의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이에 교육의 중요성과 교육 현장의 변화와 교육활동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사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2015 교육과정의 개정·고시된 현재, 교육 현장의 변화와 더불어 교육에 임하는 교사들의 능력이나 태도, 동기 또는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교육 현장의 변화는 교사 양성 과정에서 교직의 전문화 수준의 향상을 통한 우수한 교사를 길러내는 것의 중요성을 함의한다(Park, 2015).

우리나라의 교원양성 과정은 교육학, 교과교육학, 교과내용학을 포괄하는 교과학을 가르치는 일을 중심에 두고 교양교육과 교육실습을 보조적 형태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로 인해 교원 양성 교육과정에 대하여 일선 학교의 교육과정과의 연관성 부족, 교원의 자질과 품성에 대한 교육적 함의의 부재, 사범대학 교육과정이 일반대학의 교육과정과 중복되거나 지나치게 다양화된 점, 교과내용학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 교육내용이 교직 전문성 신장에 적합하지 않는 등의 정체성 결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Cho, 2004; Kim, 2004).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원 양성 교육과정에서 예비교사들의 지식, 이해, 태도의 성장과 발달 등에 초점을 둔 교육과정 연구, 교육학과 교과학 사이의 긴밀한 연계성에 대한 이해와 교과교육학과 교과내용학 사이의 개념적 구분, 독립된 내용학적 지식 전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과교육학 지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교수의 실제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교사의 PCK(교수내용지식)와 교수 효능감에 대한 관심과 연구들뿐 아니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사 준비 단계에서 PCK 함양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교사 전문성에 대한 요구에 따라 교사의 교수 활동을 구성하는 지식 기반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Shulman (1986)에 의해 제안된 것이다. 그는 교사 지식에는 교과내용학 지식과 교육학 지식 이외에 교수내용지식(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PCK)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이를 내용과 교수가

변형된 통합적 지식 체계로 규정하였다. PCK 논의는 교사 지식에 대한 연구의 목적과 틀을 제시하고, 각 교과별로 특유한 교수에 관한 연구와 교사 양성 교육과정에서의 적용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PCK에 따른 교사교육의 목표와 이를 근거로 한 교사양성 교육과정은 우수한 교사의 의미를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학생의 성취에 영향을 주는 교사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의미하는 교수 효능감은 전문적인 교수 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우수 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주요 변인이다. 교사 양성 과정에서의 PCK의 학습은 효율적인 교수행동과 예비교사들이 담당할 학생들의 학습 성취를 기대하도록 하는 교수 효능감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PCK와 교수 효능감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가정교과에서의 PCK 연구는, PCK를 가정교과교육학 지식으로 명명하고, 기존 교사를 대상으로 한 Yu(2009)의 연구에 국한되며, 이 연구에서 예비교사 교원양성 과정에서의 PCK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안되었으나 이와 관련한 연구는 전무한 형편이다. 또한 교사의 전문성의 중요 요인인 PCK와 교수 효능감과의 관계에 대해 교사뿐 아니라 예비교사를 대상으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수내용지식을 PCK로 통일하여 사용하며(Cho & Ko, 2008; Park, 2009; Ko et al., 2011; Jung, 2014), 예비 가정과 교사의 PCK 및 교수 효능감 수준을 알아보고, 예비 가정과 교사의 PCK와 교수 효능감과의 관련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본 연구의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 가정과 교사의 PCK와 교수 효능감 수준은 어떠한가?

둘째, 예비 가정과 교사의 PCK와 교수 효능감의 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예비 가정과 교사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PCK와 교수 효능감 수준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교수내용지식(Pedagogical Content Knowledge)의 의미

일반적으로 교육은 교육 내용을 매개로 한 교사와 학생의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인 교수·학습에 기반한다. 교사는 교육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 내용인 교과 지식을 전달하는 존재이며, 이 지식은 모종의 개념구조로서, 사실을 전체적으로 조직하는 원리와 같은 것이다(Lee, 1980). 이때 교과란 무엇인가에 대한 관점은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통로이자 수단이라는 목적론적 관점과 교과 자체의 고유성과 온전성을 강조하는 과정론적 관점으로 구분된다. 즉 교과는 그 교과가 지향하는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교과를 매개로 교사와 학생이 시간과 공간을 공유함으로써 인간다움을 나누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교과에 대한 연구는 세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 교과학은 교과를 연구대상으로 삼는 학문이며,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 상호 작용하는 형식과 과정을 다루는 학문인 교과교육학과 교과의 내용을 다루는 교과내용학으로 구분된다. 이때 교과교육학과 교과내용학은 개념적 구분에 지나지 않다. 즉 내용을 전제하지 않은 형식과 과정은 의미가 없으며, 형식과 과정이 없는 내용은 인간 상호작용을 통한 교육이라는 측면을 이해하지 못함을 표현한다. 따라서 교사양성에서도 단순한 학문지식과는 차별화되어 교과의 목적과 목표, 학생들의 수용 태세 등에 맞게 선정되고 조직된 교과교육학 지식을 중심축으로 삼아 그 내용과 방법의 유기적 연계성을 고려한 교사교육을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후반에 교과교육학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등장하면서 교과교육학 지식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Chae et al., 2011). 1960년대 후반 학문 중심 교육과정의 도입으로 시작된 교과교육학은 초기에는 교과 내용을 잘 가르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하는 학문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교과교육학 지식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점차 교과교육학을 교과와 교육학의 단순한 결합으로 보는 인식에서 독창적인 교과로 인식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교원양성기관의 예비교사는 단순한 교과교육학

과 교과내용학의 학습이 아닌 이를 통합한 PCK의 학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생겨났다. 즉 PCK는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핵심적인 지식, 기술, 능력에 대한 질문에 근거하여 구성해야 할 필요(Park, 2007)를 제시한 것이다. 더불어 PCK의 구성 요소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시발점을 제공한 Shulman(1987)은 교직에서의 교수활동에 대한 연구에서 교사로서의 전문적인 지식을 교과교육학 지식으로 제시하며, 이후 교과교육학 지식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시켰다. 이로 인하여 교원 양성 교육과정의 지식 기반을 전공교과지식, 교육학 지식, 교육과정 지식, 교과교육지식, 학습자의 특성에 대한 지식, 교육적 맥락에 대한 지식, 교육의 목적 지식 등이 교직의 전문직 지식의 범주로 제시하게 되었다(Park, 2007).

교과교육의 전문지식이란 교과의 특성과 구조와 교과내용이 지니는 성격에 따라 가르치는 교육학적 체계도 다르게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Kang & Ju, 2000)할 뿐 아니라 교실이라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실행을 통해 발달되어 가는 실천적인 지식(Gess-Newsome, 1999; Im, 2003)이다. 또한 교사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적 물리적 환경, 지적 환경, 내부적 사고방식 신념 등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얽혀서 형성해 나가는 지식(Driel & Beijaard, 1999)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Darling-Hammond와 Bransford(2005)는 교수 지식 기반 범주를 학습자, 교과, 교수 지식 등의 세 가지의 영역으로 지식을 재범주화하여 제시하였으며, Grossman(1990)은 교사 지식의 모델에서 PCK의 영역을 과목 내용 지식, 일반 교육학 지식, 상황 지식과 관련된 영역들과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Houston(1991)은 전문지식, 교육의 기초, 다양한 사전 준비, 교과교육학의 전공분야와 교수 분야에 대한 교과교육의 전문성으로 제시하고 있다. Park(2003)은 교수법에 대한 지식, 표현에 대한 지식, 교과내용에 대한 지식, 평가에 대한 지식, 학생에 대한 지식, 교육과정에 대한 지식, 환경상황에 대한 지식으로, Cho와 Ko(2008)는 교육과정에 대한 지식, 학생에 대한 지식, 교수전략에 대한 지식, 상황 맥락적 지식, 평가에 대한 지식으로 제시하고 있다(Jeong, 2015). 이렇듯 다양한 학자들의 논의는 PCK가 실제 교수 활동을 통하여 발달하는 경험적, 실천적 지식으로서 교사교육 프로그램에서 교수 경험을 통해 발달하는 것이며, 이를 규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시사해준다.

2. 예비 가정과 교사양성에서의 PCK

가정과 교사양성은 1950-1970년대까지는 국립 사범대학 가정교육과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학의 양적 팽창과 교직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사립 사범대학과 1970년대 초부터 확대되기 시작한 가정대학에서도 다양한 전공자들 중 일정한 교과목을 이수하고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그 후 1980년대부터 교사자격증 취득자는 급증하였으나 교직 수요가 증가하지 않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직 과정 인원 조정과 더불어 국·공립학교 교사는 임용고사를 통해 공개경쟁으로 채용하게 되었다. 이 시기의 가정과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필수 교과분야는 교과교육영역, 영양학, 식품과 조리, 의복재료와 관리, 의복디자인과 구성, 주거와 실내 디자인, 가정경영, 소비자학, 아동학, 가족학 등의 기본 이수 영역을 포함하였다 (Ministry of Education, 2000).

이때 Jang(2001)은 중등학교 가정과 교사의 교수능력을 학습 계획, 다양한 수업 전개 및 평가, 학습 공간 및 학습 자료 관리, 학습자 관리, 긍정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 지역 사회 및 다양한 인적 자원과의 연계, 수업 개선을 위한 교사의 전문성 제고 및 의사소통 능력 등의 7개 능력 영역에 76개 업무 요소로 규명하였다. Park(2004)은 가정교육과의 교육과정은 '가정교과'를 가르칠 예비교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이어야 하며, 따라서 각급 학교 교육과정에 명시된 교과 내용을 아우르는 내용학적인 측면과 교수·학습을 위한 교과교육학의 측면을 탐구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2006년에는 국가 수준에서 질 높은 교원 양성 기능 강화 및 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국가기준의 제정을 목적으로 '신규 교사의 자질과 능력에 관한 일반 기준'을 설정하여 제시하였다(Baek & Wang, 2009). Imm과 Lee(2006)는 가정과 교사의 교수능력과 현장 가정과 수업의 특징을 반영하여 기술·가정과 수업 평가기준을 개발하였는데, 지식(내용 및 교수·학습 지식, 학생에 대한 이해), 계획(수업 설계), 실행(학습 환경 조성 및 관리, 수업 실행), 전문성(전문성 발달)의 4개 대영역과 6개 중영역, 19개 평가기준을 제시하였다.

그 이후 가정교과교육에 대한 신념과 철학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와 가정과 교사양성 기관에서의 가정교육학의 철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구들을(Kim, 2005; Kim, 2007; Nam, 2007) 바탕으로 하여 KICE와 KHEEA(2008)는 '표시과목 『가정』의 교사

자격 기준과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기본 이수과목 및 분야를 총 6개, 평가 영역은 12개, 평가 내용 요소는 41개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실제 교육과학기술부고시에서 나타나는 영역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실제 사범대학 교수들과 학회 연구원들이 참여하여 정립한 자료로서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가정과 교사양성 교육과정과 임용 출제 범위와 내용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는 대학별로 편차를 보이는 사범대학 교육과정을 정상화시키고, 나아가 양질의 교사 임용으로 중등학교의 교육의 질과 공교육 활성화의 지향을 목표로 하고 있다 (Lee, 2012). 그러나 이 연구는 국가수준의 교사 자격기준을 개발하여 제시한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었으나 체계적 분석을 위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단기간에 이루어져, 이 연구에서 제시한 가정과 교사 자격기준은 전문가들의 충분한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론적인 연구결과가 아니라 비평이 존재한다(Wang, 2008; Baek & Wang, 2009).

이러한 비판과 함께 교사양성 교육과정에서 실천적인 PCK가 중요하며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이 제기되고 있다. Yu(2009, 2011)의 연구는 가정교과교육과정에서의 PCK를 가정교과교육학 지식으로 명명하고, Cho와 Ko(2008)의 PCK의 차원과 구성요소를 기본으로 하여, 가정교과교육학 지식의 구성 요소를 가정교과관 지식, 가정과교육과정 지식, 수업 전략 지식, 상황 지식, 학생 이해 지식으로 제시하였다. Yu(2009)의 연구는 중등 가정과교사 1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 결과로 기존 교사의 PCK 능력의 형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가정교과와의 연계성을 가진 실과에서의 연구(Choi, 2012)에서는 교사의 PCK의 구성요소로 실과 교육과정 지식, 실과 내용 지식, 실과 수업 방법 지식, 실과 평가 관련 지식, 학습자에 대한 지식, 교사 전문성에 대한 지식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실과의 기술 영역에 해당한다는 제한점이 있으나, 실과(기술·가정)의 학교급별 연속성 측면에서 가정과교육의 시각에서도 반추해볼 여지가 있을 것이다.

이렇듯 가정과교육에서의 PCK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예비 가정과 교사의 PCK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예비 가정과 교사의 교수내용 지식을 PCK로 통칭하고, 그 구성요소는 Cho와 Ko(2008)의 연구와 Shim 외(2013)의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가정교과의 교수법 지식, 표현 지식, 내용 지식, 평가 지식, 학생 지식, 교육

과정 지식, 환경상황 지식 등으로 정리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이때 가정교과의 교수법 지식은 가정교과에 적합한 다양한 교수법과 교과 개념 이해에 도움이 되는 교수법과 관련된 지식을 의미한다. 표현 지식은 교과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교수학적 변환을 의미하며, 설명, 이야기, 질문, 논증 등의 방법을 교과 내용에 맞게 전달할 수 있는 지식을 의미한다. 내용 지식은 교과 내용에 대한 이해와 교과의 이론, 원리에 대한 지식을 의미한다. 즉 가정교과에 대한 목표나 가정교과의 성격과 관련된 가정과 교사의 가치나 신념에 대한 지식을 의미한다. 평가 지식은 교과에 적합한 평가 도구 유형, 평가문항 및 문항 개발, 목표 도달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식을 의미한다. 학생 지식은 학생들의 개인차, 능력, 학습스타일, 발달수준, 태도, 동기, 가정교과에 대한 선지식 등에 대한 가정과 교사의 지식을 의미한다. 교육과정 지식은 가정과 교육과정의 의미와 목표, 내용에 대한 이해와 타 영역과의 관련성에 대한 지식을 의미한다. 환경상황 지식은 가정과 교수·학습에 영향을 주는 교사 자신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식과 노력에 대한 가정과 교사의 지식을 의미한다. 이때 학생 이해 지식과 환경상황 지식은 교육실습 준비 과정과 실연을 통한 현장 확인 및 부분적인 연습의 기회를 얻어 개발될 수 있다(Park, 2007). 이러한 PCK는 교사의 효과적인 전문적인 교수 수행 능력에 대한 기대와 자신이 계획하고, 수행한 교수가 학생들의 교과에 대한 태도와 개념 학습에 효과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 정도(Joe, 1998)를 의미하는 교수 효능감과 관련되어 있다.

3. 교수 효능감

교사가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정도를 말하는 교사 효능감(teacher efficacy)은 Bandura(1977)의 자기 효능감(self-efficacy) 이론을 기초로 발달하였다. 교사 효능감은 교수 효능감(teaching efficacy)과 개인적 교사 효능감(personal teacher efficacy)의 두 차원으로 구분된다. 교수 효능감이란 교수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교사의 기대를 의미하며, 개인적 교사 효능감은 교사가 자신의 교수능력에 대한 개인적 평가를 말한다. 이때 교수 효능감은 교수 자기 효능감과 결과 기대감으로 구성된다.

이 둘은 상호작용하여 교사의 동기, 정서, 행동을 결정하며(Gibson & Dembo, 1984), 학습에서의 다양한 활동의 수행 방법과 학생들을 지도하고 평가하는 데 많은 영향을 준다(Bandura, 1977; Shin, 2010). Bandura(1977)는 교사의 행동은 교수 효능감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결과 기대는 특정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행위-결과간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개인적 예상 또는 판단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때 교수 효능감은 본인에 의해 지각된 능력과 관련된 개념이므로 척도를 개발하는 데 있어 반드시 'can do'가 포함된 질문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다(Kim & Kim, 2008). 즉 교수 효능감이 높은 교사는 적극적으로 헌신적으로 수업을 개선하려 노력하며 효율적인 수업 방법을 개발하고 실험함에 있어 더욱 유능한 것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이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교수 효능감에 대한 연구는 여러 교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Riggs & Enochs, 1990; Im & Jung, 2001; Lee, 2009; Ko et al., 2011), PCK의 발달은 교사 효능감뿐 아니라 교수 실재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특히 가정과 교사의 교수 효능감에 대한 연구에서는 교수 효능감이 높을수록 다양한 교수전략을 적용하고, 교과 내용에 따라 수업 방식을 조절하고, 학생의 관심 정도를 파악하여, 학생들의 태도를 파악하여 문제 행동을 조절하고, 잘 지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 평가 정보를 진로 상담에 잘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am, 2012). 이는 가정교과에서의 PCK와 교수 효능감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본 연구의 목적이기도 하다. 가정교과 교수 효능감이란 교사가 가정교과를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신념인 가정교과 교수 자기효능감(personal home economics teaching self-efficacy)과 학생의 가정교과 학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신념인 가정교과 교수 결과 기대감(home economics teaching outcome expectancy)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 정의는 Riggs와 Enochs (1990)가 과학 교과 교수 효능감 측정을 위한 검사 도구 개발에서 과학교수 효능감을 정의한 내용을 가정교과에 적용하여 재정의한 것이다. 이때 교수 효능감은 교과를 가르치는 교사들의 태도 및 교수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수업 현장에서 교사들의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을 연구하는 데 좋은 단서가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교과 PCK와 교수 효능감과의 관련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는 예비 가정과 교사의 PCK와 교수 효능감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가정교과의 PCK는 선행연구(Shin, 2010; Yu, 2010; Jeong, 2015)에서 설정한 바와 같이 교수법 지식, 표현 지식, 내용 지식, 평가 지식, 학생 지식, 교육과정 지식, 환경 상황 지식 등으로 분류하여 측정하였으며, 이렇게 분류된 PCK 범주들이 교수 효능감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예비 가정과 교사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PCK와 교수 효능감에 차이가 있는지도 알아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예비 가정과 교사의 PCK와 교수 효능감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예비 가정과 교사의 PCK와 교수 효능감의 관계는 어떠한가?

가설 2-1. 예비교사의 교수법 지식은 교수 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예비교사의 표현 지식은 교수 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예비교사의 내용 지식은 교수 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4. 예비교사의 평가 지식은 교수 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5. 예비교사의 학생 지식은 교수 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6. 예비교사의 교육과정 지식은 교수 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7. 예비교사의 환경상황 지식은 교수 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문제 3. 예비 가정과 교사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PCK와 교수 효능감 수준은 어떠한가?

가설 3-1. 예비교사의 성별에 따라 PCK와 교수 효능감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2. 예비교사의 학년에 따라 PCK와 교수 효능감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3. 예비교사의 교사진로 고려여부에 따라 PCK와 교수 효능감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4. 예비교사의 전공과목 수강여부에 따라 PCK와 교수 효능감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연구 절차 및 측정도구

연구를 위한 자료의 수집은 설문지법을 이용하였으며, 전국의 대학교 사범대학의 가정교육과 학생 또는 교육대학원의 가정교육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에는 가정교과의 PCK, 가정과 교사로서의 교수 효능감, 전공, 학년, 성별, 교사를 진로로 고려하는지 여부 등을 측정하였다. 설문지는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한 Yu(2010)의 설문지에서의 가정과 PCK 항목과 Shin(2010), Jeong(2015)의 예비교사의 PCK와 교수 효능감에 대한 설문을 통합하였으며, 가정 교과 전문가 2인의 검증을 받아 재구성하였다. 그 외에도 전공, 성별, 학년, 교사로서의 진로 고려 여부, 기본이수과목 수강여부 등을 측정하였다. 설문 문항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울의 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가정교육과 및 교육대학원 학생들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에서 설문 문항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타당도와 신뢰도(Cronbach's $\alpha > .80$)를 갖춘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조사는 전국의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또는 교육대학원 가정교육전공에서 강의하는 교수 또는 강사들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참여를 독려하도록 하였다. 응답자들에게는 추첨을 통한 소정 금액의 온라인상품권 제공을 사례로 제시함으로써 응답률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응답자들은 수업 중에 설문지에 응답하거나, 온라인 설문 사이트(www.surveymonkey.com)를 통하여 설문조사에 응하였다. 총 256부의 설문응답 중 완성된 설문지 202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대상자들의 특성은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research participants

variable	category	n(%)	variable	category	n(%)
major	home ec edu	187(92.6)	year in college	freshman	1(0.5)
	other	13(6.4)		sophomore	33(16.3)
	missing	2(1.0)		junior	33(16.3)
gender	male	32(15.8)		senior or higher	15(7.4)
	female	167(82.7)		graduate	38(18.8)
	missing	3(1.5)	plan to be a teacher?	yes	182(90.1)
total	202(100.0)	no		20(9.9)	
			total		202(100.0)

3. 분석 방법

연구결과의 해석을 위하여 SPSS 21.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와 신뢰도 분석(Cronbach's α),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 t-검증, 일원분산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도는 교과 교수 자기 효능감(13문항)과 교과 교수 결과 기대감(12문항)의 두 가지 하위개념으로 구분되었으며 각각 .81, .87의 값을 보여 신뢰도는 비교적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참조).

또한 연구문제 1과 관련하여 예비 가정과 교사의 PCK와 교수 효능감 수준을 보고자 각 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하였다. 각 변수들의 평균은 5점 척도에 2.75에서 2.95 사이로 중간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었다. PCK 하위범주 중에서는 내용지식의 평균값이 가장 높았고, 평가지식, 교육과정지식, 교수법지식, 학생지식, 표현지식, 환경상황지식의 순으로 표현지식과 환경상황지식이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IV. 연구 결과

1. 신뢰도 분석 및 기술통계

먼저 PCK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내적 일관성을 보여주는 Cronbach's α 값을 구하였다. 그 결과 PCK의 모든 하위범주는 .90 이상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교수 효능감 척

2. 교수 효능감에 대한 PCK의 기여도

교수 효능감에 대한 PCK의 기여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

Table 2. Reliability and descriptive statistics of measured variables

variables	factors	# of items	Cronbach's α	mean(s.d.)
PCK	teaching method knowledge	8	.97	2.84(0.97)
	expression knowledge	8	.98	2.75(1.17)
	content knowledge	8	.92	2.90(0.83)
	evaluation knowledge	9	.96	2.85(0.88)
	student knowledge	9	.96	2.80(0.98)
	curriculum knowledge	10	.96	2.85(0.89)
	environment knowledge	7	.97	2.75(1.22)
teaching efficacy	teaching self-efficacy	13	.80	2.95(0.02)
	teaching outcome expectancy	12	.83	2.87(0.02)

Table 3.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TME	EXP	CNT	EVA	STD	CUR	ENV	TSE
EXP	.89***							
CNT	.82***	.77***						
EVA	.87***	.86***	.86***					
STD	.90***	.92***	.83***	.90***				
CUR	.83***	.82***	.85***	.87***	.87***			
ENV	.86***	.91***	.78***	.85***	.88***	.81***		
TSE	.70***	.72***	.68***	.69***	.71***	.67***	.69***	
TOE	.78***	.84***	.70***	.78***	.79***	.71***	.85***	.86***

note: *** $p < .001$. TME: teaching method knowledge; EXP: expression knowledge; CON: content knowledge; EVA: evaluation knowledge; STD: student knowledge; CUR: curriculum knowledge; ENV: environment knowledge; TSE: teaching self-efficacy; TOE: teaching outcome expectancy.

분석을 실시하기 이전에 각 변수들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계산하였고, 이 결과가 <Table 3>에 제시되어 있다. PCK 하위범주들 간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았으며, PCK와 교수 효능감의 하위범주들 간의 상관관계도 매우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 2를 위하여 PCK의 하위범주들을 독립변수로, 교수 효능감의 두 하위범주들을 각각 종속변수로 2회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과정에서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높아 다중공선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독립변수 중 학생지식을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가 <Table 4>에 제시되어 있다.

<Table 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교수 자기 효능감과 교

수 결과 기대감에 대한 모형은 둘 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F값을 보였다. 특히 교수 자기 효능감에 대한 R^2 값은 .56으로 PCK가 교수 자기 효능감의 56%의 변량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표현 지식($\beta = .41, t = 2.94, p = .004$)과 내용 지식($\beta = .26, t = 2.44, p = .016$)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교수 결과 기대감 모형은 .74의 R^2 값을 보여 교수 자기 효능감은 교수 결과 기대감의 74%의 변량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표현 지식($\beta = .34, t = 3.16, p = .002$)과 환경상황 지식($\beta = .50, t = 5.15, p = .000$)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가설 2-2, 2-3은 교수 자기 효능감에 대하여, 가설 2-2와 2-7은 교수 결과 기대감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Table 4. Regression results of PCKs on teaching efficacy

DV	IV	β	t	R^2	Adj. R^2	F
Teaching Self-efficacy	TME	.04	.30	.56	.55	41.56***
	EXP	.41	2.94**			
	CNT	.26	2.44*			
	EVA	.01	.06			
	CUR	.04	.33			
	ENV	.05	.39			
Teaching Outcome Expectancy	TME	-.31	-.34	.75	.74	96.92***
	EXP	.34	3.16**			
	CNT	.07	.83			
	EVA	.11	1.18			
	CUR	-.10	-1.15			
	ENV	.50	5.15***			

note: * $p < .05$, ** $p < .01$, *** $p < .001$. TME: teaching method knowledge; EXP: expression knowledge; CNT: content knowledge; EVA: evaluation knowledge; CUR: curriculum knowledge; ENV: environment knowledge.

지지되는 결과를 보였다. 가설 2-5는 다중공선성으로 인하여 검증할 수 없었으며, 가설 2-1, 2-4, 2-6은 지지되지 않았다.

3. PCK와 교수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예비교사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PCK와 교수 효능감 수준을 확인하기 위하여 t-검증 또는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학년, 교직고려여부 면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기본이수과목 중 수강과목 수도 PCK 및 교수 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즉, 분석의 결과는 가설 3-1은 기각되었고, 가설 3-2, 3-3, 3-4를 모두 지지하였다. 학년에서는 2학년의 PCK와 교수 효능감이 가장 높았으며, 4학년으로 갈수록 오히려 PCK와 교수 효능감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원양성기관에서의 교육 프로그램이 예비교사들의 교과교수 효능감을 향상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의 교육과정이나 교육방법 측면에서의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Choi(2007)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교직을 고려하지 않을수록 PCK와 교수 효능감이 높았으며, 기본이수과목 중 수강 과목수는 PCK와 교수 효능감에 부정 영향을 보였다.

Table 5. Influential factors on PCK and teaching efficacy

	year in college					graduate students	plan to be a teacher		t	# of courses taken (r)
	1	2	3	4	F		yes	no		
TME	2.27 (0.92) ab	3.49 (0.78) c	2.97 (0.99) bc	2.58 (0.92) ab	2.10 (0.71) a	8.10***	2.76 (0.97)	3.54 (0.63)	4.94***	-0.22**
EXP	2.11 (0.56) ab	3.57 (0.93) d	3.01 (1.20) cd	2.40 (1.12) cb	1.50 (0.32) a	10.15***	2.63 (1.15)	3.79 (0.68)	6.67***	-0.23**
CNT	2.64 (0.54) ab	3.42 (0.66) c	2.91 (0.88) bc	2.75 (0.86) b	2.04 (0.29) a	6.50***	2.84 (0.83)	3.37 (0.67)	2.69**	-0.20**
EVA	2.38 (0.58) ab	3.33 (0.71) c	3.02 (0.92) bc	2.64 (0.93) abc	1.98 (0.39) a	6.39***	2.78 (0.88)	3.55 (0.56)	5.48***	-0.17*
STD	2.19 (0.59) a	3.52 (0.78) c	2.99 (0.98) bc	2.46 (0.98) ab	2.21 (0.67) a	9.94***	2.70 (0.96)	3.68 (0.64)	6.14***	-0.21**
CUR	2.48 (0.64) ab	3.35 (0.68) c	2.99 (0.95) bc	2.66 (0.94) bc	1.88 (0.33) a	6.20***	2.78 (0.88)	3.53 (0.75)	3.68***	-0.22**
ENV	2.29 (0.68) ab	3.57 (0.99) c	2.93 (1.18) cb	2.44 (1.37) b	1.46 (0.40) a	7.92***	2.63 (1.20)	3.83 (0.77)	6.16***	-0.19**
TSE	2.75 (0.37) ab	3.22 (0.41) b	3.02 (0.56) ab	2.80 (0.69) ab	2.68 (0.25) a	4.06**	2.91 (0.59)	3.20 (0.34)	2.15**	-0.19**
TOE	2.64 (0.29) ab	3.26 (0.53) c	3.00 (0.65) bc	2.69 (0.68) ab	2.38 (0.34) a	6.65***	2.82 (0.67)	3.22 (0.30)	4.76***	-0.21**

note: ** $p < .01$, *** $p < .001$. TME: teaching method knowledge; EXP: expression knowledge; CNT: content knowledge; EVA: evaluation knowledge; STD: student knowledge; CUR: curriculum knowledge; ENV: environment knowledge. a<b<c: Duncan test results.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예비 가정과 교사의 PCK와 교수 효능감과의 관련성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예비 가정과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실증연구를 통하여 검토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예비 가정과 교사의 PCK와 교수 효능감 수준을 알아보고, 예비 가정과 교사의 PCK와 교수 효능감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예비 가정과 교사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PCK와 교수 효능감 수준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국의 대학교 사범대학의 가정교육과 학생 또는 교육대학원의 가정교육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202부의 설문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그 결과 대체로 예비 가정과 교사들의 PCK에 대한 자기지각과 교수 효능감은 높지 않은 편으로 나타났다. PCK 하위범주 중에서는 내용지식의 평균값이 가장 높았고, 평가지식, 교육과정지식, 교수법지식, 학생지식, 표현지식, 환경상황지식의 순으로 표현지식과 환경상황지식이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이는 표현지식이나 환경상황지식 등은 교수자로서의 경험이 축적되면서 고양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PCK의 하위범주들을 독립변수로, 교수 효능감의 두 하위범주들을 각각 종속변수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교수 자기 효능감에 대해서는 표현 지식과 내용 지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표현 지식과 내용 지식이 많을수록 가정교과의 교수 자기 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수 결과 기대감에 대해서는 표현 지식과 환경상황 지식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표현과 환경상황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교수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지식의 경우 전반적으로 다른 PCK의 변수들과도 높은 상관을 보여 다중공선성으로 인하여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나 자기 효능감의 두 변수들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 즉, 교수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PCK는 표현 지식과 내용 지식, 환경상황지식 등으로 나타났다. 교수법이나 교육과정지식, 평가지식 등 교수방법에 관련된 지식보다는 교과 내용에 대한 지식과 수업 상황에서 그것을 표현해 내는 지식, 또는 환경상황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지식 등이 교사로서의 효능감을 갖게 하는 데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예비교사들의 PCK와 교수 효능감에 대한 학년, 성별,

교직고려여부, 수강한 기본이수과목수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성별에서는 PCK 및 교수 효능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학년에는 2학년의 PCK와 교수 효능감이 가장 높았고, 4학년으로 갈수록 오히려 PCK와 교수 효능감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학년과 교육대학원생들의 PCK와 교수 효능감이 가장 낮았다. 이는 교육대학원이 교사 재교육 기관으로서가 아닌 교사자격증 획득을 위한 교원양성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즉 다양한 전공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교원임용 시험을 대비하기에는 교과 교육과정이 충분하지 않아 전공과목에 대한 만족도가 낮으며, 다양한 과목의 개설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는 가정교육 전공 대학원생의 감소로 기존 학생들의 필수 이수과목을 충족하기 위한 과목 개설로 교육과정의 계열성 및 연속성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학부생들보다 PCK 습득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이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한 Ko(2008)와 Lee와 Shin(200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교수 효능감 점수를 비교한 연구에서 4학년의 점수가 1학년 또는 현직교사보다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다(Choi, 2007). 또한 교직을 고려하지 않을수록 PCK와 교수 효능감이 높았는데 이는 교직이수여부와 남녀 성별에 따른 진로탐색활동과 진로정체감에 대한 현황을 분석한 Lee(2009)는 남녀 모두 교직 비이수자의 진로정체감 형성이 보다 안정적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반면 교직 이수를 하는 여학생의 경우 진로탐색활동을 활발하게 하지만 진로정체감 수준은 낮았는데 이는 교직 입문의 어려움으로 진로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 결과에서 유추할 때 가정교육 재학생의 많은 수가 여학생이며, 임용고사를 통한 교사 입문의 어려움으로 인해 교사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의 진로 불안정성이 높을 수 있으며, 이는 교직을 희망하지 않는 학생이 교수 효능감이 높다는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수강한 기본이수과목 중 수강 과목수 또한 PCK와 교수 효능감에 부적 영향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예비 가정과 교사들의 PCK에 대한 자기지각과 교수 효능감은 높지 않은 편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년이 높을수록, 또는 전공과목을 많이 수강할수록, 교사로서의 진로를 고려할수록 PCK가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구체적인 지식을 배울수록, 그리고 교직에 대한 진로를 구체적으로 생각할수록, 자신의 지식이 부족함을 인식하게 되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가정과 교사 양성과정의 수업들이 예비교사들에게 충분한 교수 효능감을 갖도록 훈련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기도 한다. 특히 교육대학원생들의 PCK 및 교수 자기 효능감 수준이 매우 낮았다. 따라서 교사양성기관에서는 학생들의 교수 효능감을 증진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교사로서의 진로를 선택할 경우 진로를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지원 등이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교수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PCK는 표현 지식과 내용 지식, 환경상황 지식 등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수업 진행을 위한 교수 표현 및 내용, 학생 지도, 학급 경영 등의 환경상황 지식은 교육실습을 통해 고양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Park & Park, 2000). 따라서 교원양성 교육과정 중 예비교사들에게 수업실연과 교육 실습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자료의 수집이 편의표집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일반화예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각 학교에서의 전공수업을 통하여 응답자를 모집하였기 때문에 졸업 후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예비교사들의 참여를 유도하지 못했다. 그리고 교육실습이나 교육실습을 위한 교육과정 즉 가정과교재연구 수업 수강 여부에 따라 PCK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며, PCK와 교사 효능감의 하위 영역인 학습지원 효능감, 학급운영 효능감, 환경지원 효능감, 교수전략 효능감, 요구대처 효능감(Choi, Chae, & Park, 2009)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연구 결과로 도출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예비교사들이나 임용 직전의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와 PCK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과의 연관성에 대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Baek, I-K & Wang, S-S (2009). The study for the requirement criteria of secondary school Home Economics teachers. *Journal of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1(4), 105-125.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3.
- Bruner, J. S. (1960). *The Process of education*. Mass: Harvard Univ. Press.
- Caswell, H. L. & Campbell, D. S. (1935). *Curriculum development*. New York: American Book Co.
- Chae, J-H, Park, M-J, Kim, S-G, & Han, J (2011). *Introduction to home economics education*. Seoul: Kyomunsa.
- Cho, H-H & Ko, Y-J (2008). Re-conceptualization of secondary science teacher's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PCK) and its application.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Research in Science Education*, 28(6), 618-632.
- Cho, K-W (2004). A critical examination of secondary teacher education for secondary school teachers.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35(1), 1-19.
- Choi, J-Y (2012). A study on elementary in-service teachers' constructing and developing process of technology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of Practical Arts subject.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2(2), 431-454.
- Choi, M-W (2007). *The comparison of the science teaching efficacy beliefs of pre-service and in-service elementary school teach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Jeo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Jeonlabuk-do, Korea.
- Choi, Y-J, Chae, J-H, & Park, M-J (2009). A study on the curriculum perspectives of secondary school Home Economics teachers and the Home Economics teacher efficacy.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1(1), 89-106.
- Darling-Hammond, L. & Bransford, J. (Eds). (2005). *Preparing teachers for a changing world: What teachers should learn and be able to do*.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Dewey, J. (1963). *Experience and education*. New York: Free Press.
- Driel, J. H. van & Beijgaard, D. (2001). Enhancing science teachers'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through collegial interaction. In J. Wallace, & J. Loughran (Eds), *Leadership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in science education-new possibilities for enhancing teacher learning* (pp. 99-115).

- Gess-Newsome, J. (1999).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An introduction and orientation. In J. Gess-Newsome, & N, Lederman (Eds). *Examining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pp.3-17). Dordrecht, The Netherlands: Kluwer Academic Publishers.
- Gibson, S. & Dembo, M. H. (1984). Teacher efficacy: A construct validation. *Journal of Education Psychology*, 76, 569-582.
- Grossman, P. L. (1990). *The making of a teacher: Teacher knowledge and teacher education*.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 Ham, S-H (2012). Analysis on teaching strategies according to teacher efficacy of Technology·Home Economics teachers.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18(4), 61-83.
- Houston, W. R. (1991). *Handbook of research on teacher education*. New York: Macmillan Pub. co.
- Imm, C-B & Lee, S-J (2006).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eaching evaluation standards of Technology·Home Economics(III)*. Seoul: KICE ORM; 2006-24-10.
- Im, C-H & Jung, J-P (2001). *Science teaching practice and science teaching efficacy beliefs by development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 Im, C-H (2003). Science teaching practice and science teaching efficacy beliefs by development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Journal of the Korean Earth Science Society*, 24(4), 258-272.
- Jang, M-H (2001). *Secondary school Home Economics teachers' perceptions on teaching compet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 Buk, Korea.
- Jeong, Y-J (2015). *A study on the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PCK) and teaching efficacy of prospective music teachers for secondary education on contemporary music*.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Joe, H-S (1998). Early childhood teachers' self-efficacy in teaching science.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18(2), 283-301.
- Kang, H-S & Ju, D-B (2000). Analytical investigation on the curriculum design model of teacher education. *Proceeding of the 2000 Kore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Conference*.
- KICE·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008). *2009 학년도 개편 중등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표 시과목 「가정」의 교사자력 기준 개발과 평가 영역 상세 화 및 수업 능력 평가 연구*. 연구보고 CRE 2008-6-32.
- Kim, M-S (2004). Teacher education system and new employment of teachers. *Conference Proceeding of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Teacher Education*, 29-66.
- Kim, S-G (2007). *Evaluation of TQM(Total Quality Manage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by teachers &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 Buk, Korea.
- Kim, Y-H & Kim, Y-E (2008). An analysis of the factorial validity of Bandura's teacher self-efficacy scale. *The Journal of Korea Early Childhood Education*, 28(2), 169-191.
- Kim, Y-J (2005). *The types of teacher efficacy among secondary school home economics teachers and the related variabl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 Ko, E-Y (2008). *Student satisfaction with the contents included in the curriculum of the English Education department i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nd their dependence on private educ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 Koh, S-S, Kim, E-H, Moon, J-Y, Bae, J-E, & Jeong, D-J (2011).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PCK) and pre-service mathematics teacher's beliefs. *Journal of Research in Curriculum Instruction*, 15(4), 829-856.
- Lee, H-J (2009). Study on the differences of career exploration activities and career identity depending on undergraduates' personal characteristics. *The Journal of Humanities on Pai Chai University*, 26, 15-28.
- Lee, H-W(Trans) (1980). *윤리학과 교육*. R. S. Peters의 *Ethics and education*. Seoul: Kyoyookbook.
- Lee, M-K (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mathematics teachers'*

-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and math teaching efficacy belief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 Buk, Korea.
- Lee, S-J & Shin, H-W (2008). The operation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ourse i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nd the graduate students' perception. *Journal of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0(4), 173-286.
- Lee, S-J (2012). Analysis of curriculum for Home Economics Education in the secondary college of education: Focused on subject matter education and subject contents.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18(2), 51-74.
- Ministry of Education (2000). *표시과목의 대학의 관련 학부(전공·학과) 및 기본 이수 과목 또는 분야*. 교육부고시 제 2000-1호.
- Nam, Y-J (2007). *Middle school home economics teachers' recognition and actual performance on textbook-related self supervi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 Buk, Korea.
- Park, K-H & Park, B-H (2000). A Study on reconsideration of teacher education and investigation for alternative plan: -Centered on training for secondary school teacher.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Teacher Education*, 19(1), 245-271.
- Park, K-M (2009). A meta review of the researches on PCK in mathematics. *Journal Korean Soc. Math. Ed. Ser. A: The Mathematical Education*, 48(1), 93-105.
- Park, M-H (2004). The problem and perspectives of education of Home Economics teachers in Korea. *Journal of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16(2), 1-11.
- Park, S-H (2003). The development of PCK(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instrument in science teaching for elementary school teachers.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20(1), 105-134.
- Park, S-W (2007). Study on the curriculum of teacher education programs : Issues and possible directions.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24(2), 143-173.
- Park, Y-O (2015). *Comparison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training policy between Korea and China*.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 Buk, Korea.
- Riggs, I. M. & Enochs, L. G. (1990). Toward the development of an elementary teacher's science teaching efficacy belief instrument. *Science Education*, 74(6), 625-637.
- Shim, H-P, Ryu, K-B, Lee, E-J, Jeon, S-H, & Hwang, S-Y. (2013). Features in pre-service teachers' reflective discussion on their practical work-based teaching. *Journal of Korea Assoc. Sci. Edu*, 33(5), 911-931.
- Shin, D-R (2010). *The effect of practical teaching for developing in prospective secondary science teachers' science teaching efficacy belief and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Shulman, L. S. (1987). Knowledge and teaching: Foundation of the new reform. *Harvard Educational Review*, 57(1), 1-22.
- Wang, S-S (2008). 가정과목의 2009학년도 중등교사신규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의 출제·채점 체제 연구. *Proceeding of the 2008 Summer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Conference* (pp. 30-90).
- Yu, N-S (2009). *Home Economics teachers' reflection on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in Home Economics Education(H-PCK)*.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 Buk, Korea.
- Yu, N-S (2011). An analysis of the items for the Home Economics Teacher Selection Test from perspective of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in Home Economics Education.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9(1), 1-16.

<국문요약>

본 연구는 예비 가정과 교사의 교수내용지식(PCK)과 교수 효능감 수준을 알아보고 이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예비 가정과 교사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PCK와 교수 효능감 수준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국의 대학교 사범대학의 가정교육과 학생 또는 교육대학원의 가정교육전공 학생 2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체로 예비 가정과 교사들의 PCK에 대한 자기지각과 교수 효능감은 높지 않은 편으로 나타났다. PCK 하위범주 중에서는 내용지식의 평균값이 가장 높았고, 표현지식과 환경상황지식이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또한 표현 지식과 내용 지식이 많을수록 가정교과의 교수 자기 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현지식과 환경상황지식이 높을수록 교수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지식도 자기 효능감의 두 변수들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 또한 예비교사들의 학년, 교직진로선택 여부, 수강한 기본이수과목수에 따라 PCK와 교수 효능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2학년의 PCK와 교수 효능감이 가장 높았고, 3, 4학년으로 갈수록 오히려 PCK와 교수 효능감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직을 고려하지 않을수록 PCK와 교수 효능감이 높았으며, 수강한 기본이수과목수는 PCK와 교수 효능감에 부적 영향을 보였다. 예비 가정과 교사들의 PCK에 대한 자기지각과 교수 효능감은 높지 않은 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교사양성기관에서의 학생들의 교수 효능감을 증진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교사로서의 진로를 선택할 경우 진로를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지원 등이 마련되어야 하며, 교원양성 교육과정 중 예비교사들에게 수업실연과 교육 실습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제언하고 있다.

■ 논문접수일자: 2017년 01월 19일, 논문심사일자: 2017년 01월 24일, 게재확정일자: 2017년 03월 08일